

Highlight #16: 현대미술사에 이름을 남긴 인물들

중국, 스페인, 미국에서 열리는 전시



스페인, 빌바오 <JEAN-MICHEL BASQUIAT: NOW'S THE TIME>

2015.7.3-11.1_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Guggenheim Museum Bilbao)

“검은 피카소”라는 수식어로 불리는 장 미셸 바스키아(Jean-Michel Basquiat)의 100여 점이 넘는 회화와 드로잉을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바스키아는 1960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나고 자란 흑인 아티스트입니다. 안타깝게도 1988년, 채 30세도 안 된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둔 그는 활동기간이 그리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직전인 1980년대 활동한 여타 아티스트 중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바스키아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에서 작품에 대한 영감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 TV, 책, 주변인과의 대화 등을 이미지화해 그대로 작품에 녹여내거나, 다양한 상징, 이미지, 텍스트 등 여러 아이디어를 한 화면 안에 들여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흑인, 인종주의 등 자전적 환경에서 발생한 결핍을 예술로 승화시킨 것으로도 알려져 있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낙서’를 당당히 현대미술의 한 장르로 끌어올려 기성미술계를 뒤흔들었던 혁명적인 아티스트이기도 합니다. “검은 피카소”라는 별칭이 붙은 것도 이 때문이지요.

이 전시는 그가 낙서를 매체로 표현한 다양한 주제들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얼기설기 빚겨나가는 선과 형태 탓에 종종 ‘어린이 그림’과 유사하다는 평을 얻기도 하지만, 그의 그림은 관람객들을 잠시 잊고 있던 어린 시절 풍부한 상상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Now's the Time>이라는 전시제목처럼, 바로 지금이 그의 작품을 즐길 때입니다.



<The Ring>

1981 Acrylic on canvas 152,4×121,9cm Private Collection, CourtesyAcquavellaGalleries © Estate of Jean-Michel Basquiat. Licensed by Artestar, New York

중국, 베이징 <WILLIAM KENTRIDGE: NOTES TOWARDS A MODEL OPERA>

2015.6.27-8.30_베이징 울렌스 현대예술센터(Ullens Center for Contemporary Art, Beijing)

남아프리카 출신 예술가 윌리엄 켄트리지의 작품을 총망라하는 개인전이 열립니다. 1955년 출생해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그는 힘찬 필치로 그려낸 드로잉, 판화, 그리고 애니메이션 필름으로 잘 알려진 작가입니다.

이 전시는 1988년부터 현재까지 켄트리지가 이루어낸 예술적 업적과 그가 진행한 주요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소개합니다. 전시에서 선보이는 매체만 해도 목탄과 인디언잉크 드로잉, 리노컷, 실크스크린, 키네틱 조각, 영상, 대규모 설치 등 한 작가의 작품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합니다. 특히 드로잉과 필름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드로잉은 그가 필름을 제작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항상 이 두 매체를 함께 전시하곤 합니다.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드로잉을 완성한 후 그것을 촬영합니다. 여기서 일부를 삭제하거나 몇 차례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또다시 이를 촬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의 작품은 드로잉과 필름이 동시에 같이 전시되어야만 하나의 온전한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지요.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3채널 프로젝션 <Notes Towards a Model Opera>입니다. 이 작품은 현대 중국의 지적·정치적·사회적인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에서 시작된 것으로, 그가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제작했습니다. 또한 전시장에는 켄트리지의 아티스트북, 플립북, 단편영화를 한 자리에 모은 아카이빙 섹션이 마련돼 있어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전시를 통해 켄트리지의 대담한 작업 세계로 빠져들어 보시다.



Installation view of <William Kentridge: Notes Towards a Model Opera> at Ullens Center for Contemporary Art, Beijing

미국, 뉴욕 <YOKO ONO: ONE WOMAN SHOW, 1960-1971>

2015.5.17-9.7_뉴욕현대미술관(MoMA)

오노 요코의 예술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1933년 일본에서 태어난 오노, 그는 미술가라는 타이틀보다 비틀즈 멤버 존 레논의 부인으로 대중에게 더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넘어 오노가 현대미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지요.

현재 뉴욕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오노의 개인전은 1971년 그가 개최했던 동명의 비공식 전시 <오노 요코, 한 여자의 쇼>에서 출발합니다. 당시 그는 “Museum Of Modern (F)art”라는 다소 충격적이면서도 실소를 유발하는 타이틀로 전시를 광고했습니다.

‘Fart’는 방귀 또는 시시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오노가 ‘art’라는 단어를 비꼬아 표현한 것이지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미술관에는 정작 그의 작품이 없었습니다. 미술관 조각공원에서 파리들을 날려 보내 도시 전체로 흩어지게 한 것이 바로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40년이 흐른 지금, 오노는 1960년부터 1971년까지 작품을 훑는 대규모 개인전으로 다시 한 번 관람객 앞에 섰습니다. 작가의 초기작품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아카이브 형식의 이 전시는 오브제, 종이, 텍스트, 설치, 오디오 레코딩, 퍼포먼스, 음악, 영상 등과 기록 자료를 포함한 작품 약 125점을 연대기 순으로 구성해 대거 선보이면서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다양한 예술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단순히 유명 뮤지션의 아내가 아닌 행위예술가, 오노 요코의 예술가적 성취와 업적을 면밀히 파고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 with ARTINPOST



<Cut Piece>

1964 Performed by Yoko Ono in New Works of Yoko Ono Carnegie Recital Hall, New York March 21, 1965 Photograph by Minoru Niizuma © Minoru Niizuma Courtesy Lenono Photo Archive, New York